

사회

민원·취객 상대하느라 치안 뒷전

지역 맞춤형 범죄 예방책 급하다

〈상〉 예방기능 상실한 지구대

유흥가 폭력사건 뒤치다꺼리 손 달려

경찰 조직 내에서 범죄 예방의 최 일선은 지구대 직원들이다. 순찰 등을 통해 주민들의 곁에서 민생치안을 살피면서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최근 지구대들은 밀려드는 민원업무와 유흥가 팽창으로 인한 취객, 단순 폭력 사건 증가로 범죄 예방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삼부지구대다.

지난해 삼부지구대가 담당하는 서구 치평동, 쌍촌동, 마복동, 덕흥동, 유촌동 등 5개 지역 가운데 가장 큰 치평동에서 발생한 5대 강력사건은

살인 2건, 강도 8건, 강간·추행 49건, 절도 453건, 폭력 619건 등 모두 1131건에 이른다. 또 지난해 쌍촌동에서 1057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삼부지구대가 쌍촌동의 3분의 1가량을 담당하는 것과 다른 3개동에서 발생한 5대 강력사건을 감안하면 모두 1500여건이 넘는다. 이는 지난해 서구에서 발생한 전체 5600여건의 26%에 이른다. 삼부지구대가 하루 평균 처리하는 사건은 70여건, 주말이면 100여건에 육박한다.

삼부지구대는 현재 지구대장 1명을 포함해 55명의 직원이 12명씩 4개

조로 4개대 근무를 하고 있다. 서부급속지구대 32명, 남부 백운지구대 39명, 북부 우산지구대 42명, 동운지구대 44명, 광산구 수완지구대 42명에 비하면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 이상 많은 숫자다. 파출소 단위에 비하면 두배에 가깝다. 하지만 이마저도 갈수록 팽창하고 있는 삼부지구 유흥가와 전국 최대 규모의 원룸단지인 쌍촌동 원룸촌 때문에 부족한 실정이다.

담당 구역 내 인구는 6만7000여명으로 다른 지구대나 파출소 인구에 비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초저녁부터 다음날 이른 아침까지 밀려드는 '술손님' 사건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활동이 어렵다.

쌍촌동 원룸촌의 경우는 홀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다.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집이 비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된다.

이 때문인지 지난해 쌍촌동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은 492건에 이른다. 무

엇보다도 방법 순찰이 필요한 이유다.

반면 삼부지구대의 절반 수준인 27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효덕파출소가 담당하는 남구 진월동에서 지난해 발생한 5대 강력 범죄는 강도 1건, 강간·추행 9건, 절도 141건, 폭력 136건 등 모두 287건이다. 노대동과 송암동을 감안하더라도 500여건이 넘지 않는다. 삼부지구대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 같은 이유는 삼부지구대 관할 지역과 달리 학교와 아파트단지가 많아 상대적으로 '관리'가 편하기 때문이다.

한 지구대 관계자는 "범죄 예방보다는 그때 그때 발생하는 민원이나 술주정 등을 해결하다가 범죄가 발생한 뒤에는 경찰서 업무를 뒷받침하는 주민들이 많다. 때문에 하루에 절반 이상은 집이 비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된다."

이 때문인지 지난해 쌍촌동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은 492건에 이른다. 무



보성경찰이 15일 오전 보성을 한 교회에서 감기증상을 호소하는 세 자녀를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박모(43·조모(여·34)씨) 부부의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보성 3남매 죽인 목사 부부에 엽기적 기도법 알려준 자 있다

경찰, 진술 확보

자신들이 낳고 기른 3남매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사이비 목사 부부에 엽기적 기도 방법을 가르쳐준 제3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성경찰은 15일 "박씨 부부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하다 순천에 사는 장모(여·45)씨가 자신들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해 확인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장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숨진 큰딸(10)이 남긴 메모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사망하기 전 고통에 몸서리쳤던 아이들의 심정이 그대로 담긴 이 메모에는 '이모, 아저씨' 등 제3자가 거론되고 있었다.

경찰은 이 메모에 따라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면서 장씨의 존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A4 용지에는 '아픈 게 무서워, 범세가 싫다' 등 감기에 의한 고열과 부모의 폭행 속에서 고통스럽고 답답한 마음을 남겼다.

박씨 부부는 경찰에서 지난달 말 아이들이 아파 금식기도를 했으며 잡귀를 몰아내려고 채찍 대신 허리띠와 파리채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오전 현장검증을 벌인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1차 부검에서 둘째(8)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첫째(10)와 셋째(5)는 물레 약간의 음식을 먹은 흔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씨 부부를 추가 조사한 후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나원침 (8503) 김종두



"프로배구 승부조작 브로커 1명 더 있다" 대구지검

프로배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는 15일 "프로배구 승부조작 사건을 주도한 브로커가 이미 알려진 2명 이외에 1명 더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날 "불법 스포츠도박의 자금원인 전주(錢主)와 승부조작의 핵심역할을 한 프로선수들이 이어주는 매개 구실을 한 제3의 브로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야구 승부조작과 관련해 박은석 2차장 검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제외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나 정황이 포착되면 프로배구와 관련한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야구와 관련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영당'이 물어 지압 가짜 한의사 징역형 상대판

15일 지압이나 침 시술을 통해 수년간 여태의 치료비를 챙기고 여자 환자에게 못된 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한의사 자격증이 없는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침 시술 등을 하는 건강센터를 차려 환자 153명에게서 1억 2200만원 상당을 챙기고 또 지압을 받으려고 찾아온 A(여·55)씨의 영당을 이를 이빨로 무는 식으로 지압하는 등 치료에 필요한 행위인 것처럼 속여 A씨를 강제로 성추행했다는 것.

○재판부는 "환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고 죄를 뒤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고등학생 조폭

후배폭행한 대원 9명 검거

고교생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조직범죄수사팀은 15일 "여자친구에게 장난전화했다는 이유로 시내 폭력조직원을 동원해 같은 학교 동급생과 후배 조직원을 폭행한 신양 OB와 행동대원 9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광주 모고등학교 3학년인 고모(19)군 등 9명은 지난해 10월1일 오전 광주시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사거리 부근 골목길에서 같은 고등학교 강모(18)군이 같은 조직에 가입한 한모(18)군의 여자친구에게 장난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강군 등 6명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들 중 정모(19)군 등 4명은 후배조직원을 각목으로 약 65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아쉬운 이별

15일 오전 서영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11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아쉬워하며 쉽게 교정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전문학사 1771명, 전공심화과정 4년제 학사 135명 등 모두 1906명이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자살한 중학생 D(15)군의 아버지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 눈으로 보기 위해 방청석에 앉았다"며 "사망하기 전날 가족과 외식하고 소꿉끼리 했던 아들이 왜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재판을 통해 밝혀지길 고대한다"고 토로했다.

D군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17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A군 등은 D군을 괴롭힌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자식 잘못 인정... 용서 바랍니다"

학교폭력 자살 중학생 가해학생 어머니 재판서 눈물 참회

"모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바랍니다." 학교폭력에 시달린 중학생 자살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가해학생의 어머니가 눈물로 참회했다. 담당하지 않았던 가해학생도 어머니의 모습에 눈물을 떨구었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 박미하 판사는 15일 오전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15)군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중학교 2~3학년인 이들은 판사의 질문에 차분히 답변을 이어갔다. 이들 학생들은 애초 변호인을 통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옆에서 있었지 협박한 것은 아닙니다" "빌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방청석 뒤편에서 듣고 있던 B(15)군의 아버지가 판사의 양해를 얻어 "아닙니다. 모두 인정하겠습니다"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돌변했다. 박 판사는 이에 대해 "학생 여러분이 인정해야한다. 책임은 학생이 져야하며 감옥을 가도 학생들

이 가야하기 때문"이라며 재차 학생에게 이를 확인했다.

그러자 뒤편에서 있던 C(16)군의 어머니도 "저도 인정하겠습니다"며 울먹였다. 가만히 앉아있던 C군은 하염없는 어머니의 눈물에 뒤늦게 자책의 눈물을 흘렸다.

이날 재판은 증거신청 등 절차를 마치고 1시간 만에 끝났다. 일부 다름의 소지가 있는 A군에 대한 다음 공판은 29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다른 2명에 대해서는 A군 재판 진행에 따라 다음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살한 중학생 D(15)군의 아버지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 눈으로 보기 위해 방청석에 앉았다"며 "사망하기 전날 가족과 외식하고 소꿉끼리 했던 아들이 왜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재판을 통해 밝혀지길 고대한다"고 토로했다.

D군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17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A군 등은 D군을 괴롭힌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해 서울로 이송됐다.

사고가 나와 시실 측은 A씨를 격리 조치하고 아동대호보호센터 직원과 함께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 이 보호 시설에서는 기초수급자 모자 7가구 18명이 자립 때까지 5년간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설 관계자와 엄마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엄마가 딸에게 뜨거운 물 부어

함평 보호시설서... 학대 의혹 수사

함평의 모자보호시설에서 엄마가 네 살배기 딸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함평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함평읍의 한 모자보호시설에서 A(여·24)씨가 딸 B(4)양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 B양은 머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처가 심

해 서울로 이송됐다.

사고가 나와 시실 측은 A씨를 격리 조치하고 아동대호보호센터 직원과 함께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 이 보호 시설에서는 기초수급자 모자 7가구 18명이 자립 때까지 5년간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설 관계자와 엄마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정당"

항소심서 국민소송단 패소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정당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 제1회정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4대강사업'이 "4대강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 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

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 이같은 하자가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거나 영향을 미쳐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사 예산편성의 절차상 하자 때문에 그 예산상의 재원으로 집행 예정이던 이 사건 처분마저 위법하게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예약접수 중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개강:3월2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사기보** **7급 검찰직** **소방직** **한빛고시학원** **농업직** **9급 야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평생 장학금**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